

■ 특집

일본 군국주의 망령 되살아 난다

편집실

아사카 훈련장에서 열린 자위대 창설 40주년 기념 행사를 통해 일본의 극우세력은 일반국민들에게 자위대를 홍보하고 이를 계기로 현행 헌법을 개정해 명실 상부한 일본군대로 탈바꿈하려는 조짐을 보였고, 이 작전은 상당한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이 우려의 수준을 뛰어넘어 동북아시아에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일본의 군대, 이른바 자위대는 세계 제2위에 이르는 군사예산, 특히 보유하고 있는 첨단무기와 장비들로 보아 아시아 최대의 군대이면서도, 군대라고 부르지 않고 '자위대'라고 호칭하고 군사관련 용어들도 특이하다.

이는 일본정부가 한국전쟁을 계기로 자위대 창설 당시 헌법에 명시된 전력 보지와 전쟁의 금지 조항에 대한 논란을 호도하고 자위대는 헌법에 금지한 '군대'가 아니며 '전력'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변하기 위함이다.

지난 10월 30일 일본 자위대는 장비 전시회와 함께 자위대 창설 4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지금까지 군사대국화에 강력하게 반대하던 사회당의 총수 무라야마(村山)가 수상으로 선출된 상황에서 총인원 4천4백여명, 차량 2백 45대, 항공기 93대가 참가하여 가장 거대하게 벌여졌다는 것이다.

2차세계대전에서 패한 지 48년, 그리고 「자위대」라는 명칭으로 재군비를 시작한지 43년만에 일본은 지난 92년에 캄보디아 파병을 단행하여 아시아 여러나라에 「新일본의 아시아 재상륙」을 우려하는 경계의 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이는 경제대국에서 정치·군사대국으로 나아가

다는 의지의 표명인 동시에 시발점이 되어 각 부문에 걸쳐 정치력 강화와 군비확장 움직임이 급속히 추진되기 시작했다.

일본의 군사비는 이미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군사비가 GNP의 3~6%를 차지하는 서방 선진국에 비해 겨우 1%에 불과해 군사비 지출이 세계 7위 수준이라고 강조하지만, 영국 국제전략연구소가 펴낸 〈Military Balance '93~'94〉의 1993년 각국 군사예산 비교에 따르면 일본은 397억불로 프랑스 358억불, 영국 351억불, 독일 312억불, 러시아 291억불을 뛰어넘어 군사 초강대국을 자처하는 미국 2588억불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민수기술기반과 연구개발 투자에서 구미 선진국은 물론 미국을 추월하고 있고, 이러한 민수기술의 무기생산기술로의 전용을 고려하면 일본의 잠재력은 실로 대단한 수준이다.

또한 일본은 핵무장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일본이 핵연료자급계획의 일환으로 건설한 고속증식로 원형로인 「문주」를 착공한지 8년반만에 臨界(핵분열의 연쇄반응이 계속되는 상태를 임계에 달했다고 함)에 도달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고속증식로는 경수로와 달리 플루토늄을 태워 이론상으로 사용량보다 1.2배의 증식을 가져온다.

舊소련의 핵무기 해체로 플루토늄이 남아도는



우주개발 계획으로 추진중인 HOPE와 우주정거장 개념도
 상황에서 일본의 플루토늄 증식정책은 주변국에
 불안을 자극해 핵확산금지체제 유지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치고, 非핵 3원칙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고도의 핵기술을 가진 일본의 과도한 플루
 토늄 보유는 핵무장의 전조로 보는 주장들이 제기
 되고 있다.

이런 주장은 자위대의 해외파병 이후 헌법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강한
 기존 105mm 포를 대체해 육상자위대에 배치된 155mm 곡사포 FH70



설득력을 갖는다. 가네마루 前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극우세력은 기회만 오면 기존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군국주의 부활을 강력히 모색하고 있다.

1950년대부터 아사히(朝日)신문은 자위대의 위
 헌여부에 관해 매년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 여기서
 위헌여부에 관련된 것은 일본 헌법 제9조에 관련
 된 것이다.

헌법 제9조 내용은 『일본국민은 국제평화를 희
 구하며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군사력
 사용을 영원히 포기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육·
 해·공군의 군사력과 이외 어떠한 전쟁능력도 보
 유, 유지하지 않는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위대는 분명히 위헌이기 때
 문에 자위대의 존재를 합헌적으로 만들기 위한 헌
 법개정에 대한 여론 조사는 한번을 제외하고 반대
 가 찬성보다 많았다.

단 한번의 예외는 1980년에 실시한 여론조사로
 1979년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략했을 당시 소
 련을 최대의 가상적국으로 생각하던 일본 국민이
 위협을 느껴 자위대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여론
 이 우세했던 경우 뿐이었다.

이렇듯 자위대 존재를 탐탁치 않게 여기고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던 일본국민이 냉전이 종결되
 고, 걸프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자위대의 존재를 인

걸프전에서 다국적군이 이라크를 압도한 것은 일본의 첨단 기술력에 기인하였음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일본은 현존하는 어떠한 전투기보다 막강한 전투력과 첨단 전자장비를 장착해 생존성을 높인 FSX 계획(사진)을 추진, 실현단계에 있다



정하고, 향후 자위대의 국제적 역할에 목시적 지지를 보낼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걸프전쟁 비용으로 130억불이라는 돈을 내놓고도 경제대국으로서의 일본만 확인했을 뿐 국제사회에서 정치적·군사적 목소리를 조금도 낼 수 없음을 확인한 일본국민들은 엄청난 심리적 좌절감을 겪어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승인하게 되는 결과까지 낳게 되었다.

최근 일본은 UN 중심주의가 부상됨에 따라 중·장기 과제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기 위한 방침을 굳히고 외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안보리 이사국이 되면 군사참모 위원회의 회원국이 됨과 동시에, UN군에 참가해야 되는 국제적 책임에 직면하게 되므로 헌법개정에 관한 국민적 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최근의 평화무드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94년판 국방백서를 통해 한국과 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기본 구도에 변함이 없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과 地對地 미사일의 장거리화 움직임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러시아 극동군이 양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나 신형무기 배치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역시 해군을 중심으로 장비 근대화를 추진하면서 국방비를 대폭적으로 증가하여 「미래에 대한 불투명감」이 계속되고 있어 일본도 자위대의 조직, 편성, 배치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일본 방위 전반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은 아직까지 태평양전쟁의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한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국가에 심각한 위기의식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특히 일본은 2차세계대전의 악몽에서 도피한 것이 독일처럼 적극적인 과거청산과 평화창출의 노력을 보여 주지 않았다는 점과 PKO 자위대 해외 파견 등 국제 공헌이라는 허울을 쓴 야누스적인 모습을 볼 때, 주변국의 우려는 단순히 기우만은 아닐 것이다.

현재 일본은 육상, 해상, 항공자위대에 23만 7천명 정도의 병력을 운용하고 있으며, 90식 신예전차, 지대함 미사일 SSM, 지대공 미사일 나이키 J, 대잠초계기 P-3C, 잠수함, F-15 전투기 등의 최신 병기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현재 차기지원전투기(FSX) 대형 항공기 엔진, 닥티드(Ducted) 로켓 엔진 시스템, 세라믹 엔진 분야 등에서 미국과 동등 혹은 우월한 기술력을 가지고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전투기 1대를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의 2배를 라이선스 비용으로 지불하며 기술축적에 나섰던 일본은 이제 그동안 가슴속에 깊이 묻어 두었던 야망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국제공헌을 통해 세계평화를 추구하겠다는 일본을 신뢰하기 힘든 이유는, 일본이 평화란 개념을 막연히 인식할 뿐, 평화의 실현이라는 비전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냉혹한 국제사회에선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 *